



## I. 서론





# I. 서론

끊임없는 경쟁과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은 현대사회를 살아나가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있어서 청소년은 물론 아동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들 중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해 폭력, 가출, 학업중단, 우울, 불안, 자살 등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예로, 2001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실태조사(이종원, 임성택, 최원기, 최종현, 2001)에 따르면 문제행동을 경험해본 청소년의 비율이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많게는 68%에서 적게는 1%미만까지 다양하였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무단 외박이 전체의 18%, 왕따가 11%, 자살시도가 6% 등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정도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비단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거의 대부분의 아동 및 청소년이 사회적응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요구받는 모든 개인이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문제행동을 보이는 이들의 공통된 특성은 무엇인가? 또한 문제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그들을 위한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아동 및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기질적 문제에서부터 열악한 환경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든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이고도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그에 앞서 이 연구에서는 그중에서 자아관련 변인과 부모관련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들을 문제행동 상황으로 유도하는 일차적 원인은 바로 가족(김준호, 1993)이며 이들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개인적 특성(김두섭, 민수홍, 1996; 민수홍, 1996)이다.

일련의 연구들은 부모와의 애착(Loeber & Dishion, 1984; West & Farrington, 1973)이나 자녀에 대한 부모감독(박진경, 도현심, 2001; 천희영, 김미혜, 옥경희, 2002; Crouter, MacDermid & Perry-Jenkins, 1990)이 자녀들의 문제행동과 연관이 되어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 예로 Crouter와 동료들(1990)은 부모의 감독수준이 낮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학령기 자녀들의 학업성취도는 낮은 반면 문제행동 수준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청소년기 자녀들의 범죄나 약물사용의 정도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부모 애착과 관련하여서는 반사회적 아동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애착을 비롯하여 수용, 온정, 애정, 정서적 지지 등의 측면에서 정상아동의 부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Loeber & Dishion, 1984; West & Farrington, 1973).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부모관련 변인이 아동 및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이 부모관련변인과 문제행동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매개변인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은 아직 확실히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관련변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또 다른 중요한 변인은 바로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통제와 같은 자아관련 변인이다. 자아통제와 관련하여서 일련의 연구들(김두섭, 민수홍, 1996; 김현숙, 1998)은 자아통제가 문제행동 및 비행과 상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다른 일련의 연구들은 자존감이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을 뿐 아니라(Beck, 1967) 비행, 공격적 불안과 같은 비행(Kaplan, 1979)과도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어떤 연구들(예. 심희옥, 1998)은 자존감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을 주장하였으나 또 다른 연구들(Medora & Hellen, 1994)은 자존감과 문제행동 간에는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간단하게나마 언급된 연구들은 부모관련변인과 자아관련 변인이 아동기 초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관련 변인과 부모관련 변인이란 두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 변인들이 사회적 부적응의 표현으로 간주되는 문제행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후의 장들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되는 선행연구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고찰해보고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제기,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원은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학생을 대상으로도 청소년패널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굳이 초등학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는 이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4학년생들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및 예방에 있어서 보다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 초기로 진입하려는 시기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문제행동과 관련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초기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의 및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기 및 청소년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을 모색해 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1. 문제행동
2. 자아관련변인과 문제행동
3. 부모관련변인과 문제행동
4. 선행연구
5. 본 연구 설계의 근거



##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문제행동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을 먼저 한 후,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과 자아관련 변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들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겠다.

### 1. 문제행동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부적응적인 문제행동(emotional and behavioural problem)을 보일 수 있다. 문제행동은 아동의 가정, 학교, 그리고 아동 자신의 장기적인 복지(well-being)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orita, Suzuki, & Kamoshita, 1990).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아동의 발달연구 영역에서 문제행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Achenbach & Edelbrock, 1981; Richman, Stevenson & Graham, 1982; Rutter et al., 1975).

일반적으로 문제행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학교를 포함한 적어도 둘 이상의 장(場)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장애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아동이 문제행동을 보이는가 아닌가는 문제행동의 본질, 발생 빈도, 일관성, 심각성 정도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DFE, 1993).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아동의 6~20%에 달한다고 하며(Rutter, Tizard & Whitmore, 1970; Shepherd, Oppenheim & Mitchell, 1971), 몇몇 연구들은 5~30%로 보고하기도 한다. 문제행동의 출현율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행동의 정의, 이론적 배경, 측정방법 및

도구 등의 차이에 기인한다. 하지만 많은 아동이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며 이에 대한 대책 및 예방이 절실히 필요하다.

### 1) 문제행동의 개념

아동의 문제행동이란 아동의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서, 일반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송의열과 이미자(2001)는 문제행동의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보이는 인지적, 정서적, 심리운동 기능적 발달 측면의 행동이 정상적인 아동들이 보이는 범주의 행동과는 달리 발달적 또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상의 비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에서 유발된 부적응 상태의 행동양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Department For Education(DFE, 1993)에 의하면, 문제행동이란 사회적으로 방해가 되는 (외현적) 문제에서부터 정서적,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내재적) 문제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즉, 문제행동이란 사회 및 정서 발달상에 나타나는 내재화된 또는 외현화 된 역기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학령기의 아동에게 흔히 나타나며 그 종류나 정도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일반 아동들 역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역기능을 특정시기에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대체로 신체적, 사회적, 대인적 상황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적응상의 문제를 나타낸다. 이들은 더 나아가 부적절하고 공격적이며 기괴하거나 위축된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학습 환경 사이에 장벽을 만들기도 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1989).

문제행동은 갈등이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와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로 대별된다. 외현적 문제행동은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공격성, 과잉운동, 거짓말, 도벽,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등의 행동적인 문제를 말한다. 내재적 문제행동은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

10 | 초등학교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지 못하는 위축행동 및 불안 행동뿐만 아니라, 외로움, 우울, 두려움 등의 정서적인 문제행동을 의미한다(Achenbach & Edelbrock, 1983).

## 2) 문제행동에 관한 이론적 접근

문제행동의 발생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적인 관점들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는 문제행동을 가족과정 및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다(Barber, 1992). 개인의 역기능적인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내적인 병리현상 때문이라기보다는 부적절한 인간관계나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체계론적인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에게 가장 가까우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 내에서의 갈등이 병리적인 역기능을 발생시킨다고 보는 것이다(박성연, 도현심, 1998).

둘째, 가족체계론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미치는 환경의 영향에 중점을 두어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사회통제이론이 있다(Hirschi, 1969). 사회통제이론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유대가 강할수록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순응하도록 통제되어지고, 반면 유대가 약하거나 손상될 때 범죄나 비행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최근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여러 요인 중 애착이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고성혜, 1994; 김두섭, 민수홍, 1996). 애착은 개인이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발전시키는 애정과 존경 등의 심리적 유대 관계를 말하는데, 이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으로 간주된다(남현미, 옥선화, 2001).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는 부모와의 애착에서 시작되므로, 애착과 같은 가족의 심리적 환경을 문제행동의 발생 원인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차별적 접촉이론의 관점에서 문제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Sutherland & Cressey, 1978). 차별적 접촉이론은 개인이 어떤 비행적인 문화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접촉하게 되면 그 문화와 동일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문화와 동일한 문제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문제행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학습되는데, 가족이나 친구집단 같은 긴밀한 관계집단 내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때 문제행동에 필요한 기술, 동기, 추진력, 합리화 및 태도 등의 내용이 학습된다고 보는 것이다(남현미, 옥선화, 2001).

### 3) 문제행동의 원인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긍정적인 행동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문제행동의 원인을 아동의 성격, 신체특성과 같은 개인특성(김두섭, 민수홍, 1996; 원호택, 1991), 가족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포함하는 가족특성(고성혜, 1994; 김준호, 김순형, 1995; 정유미, 김득성, 1998; Barnes & Farrell, 1992), 학교성적 및 적응 등의 학교관련 특성(김준호, 노성호, 1993), 친구집단 성향과 친구관련 특성(오미경, 1998; 정유미, 김득성, 1998; Barnes & Farrell, 1992), 그리고 사회구조적 환경(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등으로 보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문제행동의 원인을 가정환경 및 개인의 인지적, 심리적 특성에서 찾고자 하였다(하영희, 2003). 특히 문제행동에 대한 초기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하여 적절한 행동과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알게 되며, 또 사회의 규칙과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학습하게 된다. Cummings와 Davies(1994)는 어머니의 우울 성향과 신경증적 성향은 자녀에게 철회, 불안, 수동성과 같은 내재화된 장애 및 공격성, 행동화와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야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부모행동의 질을 변화시킴으로써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에게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또래 간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향을 키워준다(Kochanska, 1991).

한편, 국내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정서지능, 인지능력, 기질, 성차, 사회적 능력 등의 아동 개인변인과(박명화, 2001; 서수경, 1993; 최영희,

12 | 초등학교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1990; 황혜신, 황혜정, 2001)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가족구조 등의 환경변인(김선희, 2000; 유안진, 최나야, 한유진, 2002; 한미현, 1996; 황혜정 1997)을 문제행동의 예측변인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이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문제행동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문제행동 자체가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여러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문제행동의 일관성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문제행동이 어느 정도는 일관적이라는 결과들을 보여준다. 최근 아동의 문제행동이 주요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아동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동의 성장과 더불어 더 큰 사회적 부적응 행동이나 문제행동을 유발할 뿐 아니라,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일탈로 이어지며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남소현, 김영희, 2000). 아동기의 반사회적 문제행동은 초기에는 비교적 가벼운 것이어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방치되는 경우 만성화되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점차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로 발전하게 된다.

Campbell과 Ewing(1990)은 종단적 연구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이 지속적 인지, 그리고 그 문제들이 예측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3세에 행동 문제를 보인 어린 아동들, 특히 그 중에서 6세까지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었던 아동들이 아동기 중기가 되어서도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비교적 단보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를 보인 아동들은 공격적, 반항적 행동뿐만 아니라 주의력 결핍/과잉운동 장애(ADHD)까지로 문제가 발전하기 쉽다고 하였다. 많은 수의 아동에게서 행동 문제가 취학 전에서부터 초등학교 시기로 지속된다는 결과는 아동의 행동 문제를 몇 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연구한 여러 다른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Fischer et al., 1984; Richman et al., 1982). 즉, 취학전 시기에 과활동적이고 주의력이 낮으며 훈육의 문제가 있는 아동은 초등학교 시기에도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예, Campbell & Ewing, 1990).

Richman과 동료들(1982)은 영국 런던에 사는 705명의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연구하였다. 3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아동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과잉활동, 부주의, 관심 끌기, 훈육하기 어려움, 부정적인 정서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8세에 후속 연구를 하였을 때, 이 중 62%의 아동이 여전히 적응 문제나 과잉 활동, 친구 문제, 반항 등의 기본적인 행동 문제를 보였다. Richman과 동료들(1982)의 연구와 매우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Minde와 Minde(1977)의 연구도 문제 행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McGuire와 Richman(1988)은 행동 문제를 가진 유아원 아동의 58%가 20개월 후에도 문제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취학전 아동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춘 위의 연구들과 더불어 어떤 연구들은 학령기와 청소년기에서의 행동문제의 일관성을 보고하였다. McGee와 동료들(1985)은 초등학생 940명의 문제행동을 2년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5세와 7세에 Rutter(1967)의 CBQ (Children's Behaviour Questionnaire) 점수의 상관을 가지고 본 문제행동의 일관성은 .44였다. Morita와 동료들(1990)도 80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CBQ를 사용하여 문제행동을 평가하였다. 6개월 후의 후속 연구결과를 보면, 교사용 CBQ에 의해 평가된 문제행동의 일관성 (Pearson's  $r$ )은 .62였고, 부모용 CBQ에 의한 일관성은 .73이었다. Rutter와 동료들(1970)의 연구에서도 Morita와 동료들(1990)의 부모용 CBQ의 일관성과 마찬가지로 재검사 신뢰도를 .73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취학 전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기까지 지속된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기 중기까지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문제행동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 60% 정도의 아동은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2. 자아관련 변인과 문제행동

아동이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며 자신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중 아동의 내적 변인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이 중 특히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였다.

###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일반적 자아개념의 한 요인이다. Holland와 Andre(1994)에 의하면 자아개념은 자아에 관한 다양한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적인 신념으로서 개인이 지각하는 가치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적응을 위해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심리특성이다(Harter, 1993).

자신이 기대하는 기준에 비추어 자신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긍정적일 때 아동은 적절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게 되며, 그렇지 못할 때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 자기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아동,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이 건강한 심리사회적인 발달 특성을 보인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이나 청소년은 긍정적이고 쾌활한 정서 상태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김애경, 2001),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도덕적인 사고가 발달해 있고 창의적이다(김희화, 김경연, 2000). 또한 주위의 유혹에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며(심희옥, 1998), 성취동기 수준이 높고(홍성은, 도현심, 2002), 자신감이 있다(강기정, 정은미, 2003).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은 우울증, 학교생활 부적응, 집단 괴롭힘, 비행, 폭력, 약물 남용 등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심희옥, 1997; 최은영, 최인령, 2002).

## 2) 자아통제력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내적 변인으로 자아통제력을 들 수 있다(김선희, 2000). 자아통제력이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뜻한다(Shaffer, 1993).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와 권리, 그리고 순간적인 충동을 자제해야 하는 자아통제가 요구된다(Shaffer, 2000).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자아통제력을 사람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범죄적 행위를 회피하는 차등적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아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아동은 낮은 학업성취,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 사회적응력의 미숙, 문제해결능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김현숙, 1998; Mischel, Shoda & Peake, 1988). 반면, 자아통제가 높은 아동일수록 위기적 환경 속에서도 문제행동을 덜 보이며 스트레스에도 잘 대처한다고 한다(Feldman & Weiberger, 1994).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통제는 비행의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하영희, 김경연, 2003).

## 3) 자아관련 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 변인 중 자아관련 변인으로 자아존중감(민수홍, 1996; 원호택, 1991)과 자아통제력(김두섭, 민수홍, 1996; 김현숙, 1998)을 주요한 변인으로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많은 연구에서 우울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고(Beck, 1967), 공격적 불안과 같은 비행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Kaplan, 1979). Rosenberg와 동료들(1989)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이 비행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심희옥(1998)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이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련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문제행동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Robinson & Frank, 1994). Medora와 Hellen(1997)은 자아존중감이 문제행동을 예측해주지 못한다고 했으며, King과 Fularczyk(1981)도 비행과 낮은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다

고 하였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통제력과 같은 자아관련 변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남현미, 옥선화, 2001).

### 3. 부모관련 변인과 문제행동

이 연구에서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을 부모 관련 측면에서 고찰하기로 하고, 부모의 폭력, 애착, 그리고 감독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 1) 부모폭력

부모 폭력은 부모에 의해서 자녀에게 가해지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말한다. 즉 아동을 보살피며 상호작용하는 부모가 아동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가하고 파괴할 목적으로 의도적이며 비우발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만(2001)은 부모에 의해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아동학대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은 학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은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Steinberg et al., 1994). 부모 폭력의 영향은 즉시 나타나지 않고 누적되어 성격형성이나 발달상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또는 단 한 번의 폭력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피해 아동은 가벼운 타박상에서부터 심각한 경우 정서적, 심리적 후유증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다양하다.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후유증의 경우,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며, 자아존중감의 손상으로 아동은 자기 스스로를 학대받을 만하다고 인지하게 된다. 결국 피해 아동은 광범위한 문제행동을 나타내고 극심한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Faller, 1997).

## 2) 부모애착

애착이란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를 말한다(Bowlby, 1958; Ainsworth et al., 1978). 애착은 근본적으로 선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극히 소수의 제한된 대상에 대해서 형성되며, 애착이 형성된 대상에 대해서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가까이에 있으려는 욕구를 갖게 된다(송명자, 1995).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이후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Thompson, 1998).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영아는 유아기에 자신감, 호기심,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아동기가 되어 도전적인 과제를 잘 해결하고, 좌절을 잘 참아 내며,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옥분, 2002).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여주는 민감하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안정된 애착과 지속적으로 연관되므로(Belsky et al., 1996),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가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 3) 부모감독

부모감독(parental monitoring)은 양육방법이나 양육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자녀의 활동과 적응, 자녀가 가는 곳에 대해 알고 추적하는 일련의 부모 행동이다(이미리, 2004). 사회학습 이론가인 Lamborn과 동료들(1991)에 의하면, 자녀가 외출할 때나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등 자녀의 다양한 활동을 감독하고 조절하는 부모의 감독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양육방법이며, 이는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부모감독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의 부모감독은 자녀의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로,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를 단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수단이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강한

아동은 부모의 통제와 감독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Edwards, 하영희, 2005).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부모감독을 많이 받는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Harter, 1988). 즉 부모감독의 효과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과 관련이 있다(Kerns et al., 2001).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활동이나 문제들을 잘 파악할 수 있으나,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친구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지, 혹은 집밖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해 알기가 어렵다. 한편,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부모감독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을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통제의 수단으로서 감독하거나 점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고정자, 2005).

국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감독을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양육방식으로 본다(고정자, 2005).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영향권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데 이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절하며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는 감독자로서의 부모 역할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도 부모감독을 긍정적인 측면의 양육으로 보고, 부모감독이 아동의 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4) 부모관련 변인이 자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폭력이나 애착, 그리고 감독 등의 부모관련 변인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통제 등의 자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관련 변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동은 자기가 속한 가정환경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 특히 부모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며 그 결과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므로 부모와 관련된 변인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은경, 유가효, 2002).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가족과 친구 맥락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이미리, 2004). 자아존중

감과 관련된 가족 맥락의 변인으로는 부모변인과 형제변인 그리고 가족과정 변인이 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중 부모변인으로는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최근에는 부모감독 변인이 분석되었는데,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을 하고 자녀와 친밀한 상호작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김경연, 1993; 손화희, 윤종희, 1990).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지와 지원, 그리고 애착이 자녀의 높은 자아존중감이나 심리적 적응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Maccoby & Martin, 1983).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일수록 더욱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Harter, 1988). 특히 청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사회적 유능성, 정서적 적응, 자아존중감 등 여러 측면에서 행복한 삶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Kobak et al., 1993). 여러 환경 맥락들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이미리(200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폭력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한편, 부모감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연, 1993; 박선영, 도현심, 1998; 박영애, 정옥분, 1996; 이숙, 최정미, 2003; 천희영, 옥경희, 김미해, 2001).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자녀발달에 대한 지원적이고 명확한 대화와 애정, 그리고 적당한 통제로 특징지어지는 양육이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과 연관된다는 것을 지지한다(Barber & Rollins, 1990). 반면에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애정과 대화가 부족하고 자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자녀는 심리적 문제, 비행이나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arnes, 1990).

한편, 자기통제이론에 의하면, 자아통제력은 부모의 자녀양육 방법과 노력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며(김두섭, 민수홍, 1996; 남현미, 옥선화, 2001), 인생의 초기 단계에 형성된 자아통제력은 평생동안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부모가 자녀의 충동적 반응에 대해 신중하고 일관성 있게 양육하면 아동은 자아통제력이 강화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형태나 모의 취업여부 등 가족의 물리적 특성보다는 가족관계의 질적인 특성에 따라 자녀

의 자아통제력이 달라진다고 한다. 즉 일련의 연구(김두섭, 민수홍, 1996; 민수홍, 1996)들은 부모의 감독이나 언어적 폭력, 다툼 등의 요인이 자녀의 자아통제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과 감독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통제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었다(기광도, 2001). 한편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부적절한 자녀양육이 낮은 자아통제력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높은 자아통제력을 야기하는 적절한 자녀양육은 자녀와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자녀를 가까이에서 감독하고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여 훈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자녀들은 대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 5) 부모관련 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폭력이나 애착, 그리고 감독 등의 부모관련 변인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에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모관련 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부모의 폭력에 관한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에게서 폭력을 경험한 아동이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보다 친구와 싸우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문제행동을 더 보였다(김광일, 고복자, 1987). 또한 부모의 폭력은 청소년의 무단결석, 가출, 폭행, 절도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노성호, 2004).

비행 아동과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와 실제적인 훈육에서 엄격한 경향이 있다고 한다(Frude, 1984; Sturge, 1982). 이러한 부모는 또한 긍정적인 행동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자녀 훈육시 폭력적이고 비판적이며, 소극적, 비밀관적이고,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을 강화하는 반면 친사회적인 행동은 무시하며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Webster-Stratton & Herbert, 1994). 또한 아동의 공격성이 가정에서 받는 처벌의 심각성과 정적으로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Sears, Maccoby & Levin, 1957).

부모감독의 경우, Brendgen과 동료들(2001)은 낮은 수준의 부모감독이 폭력의 예측요인이라고 하였으며, 부모의 애정과 보살핌을 받으면 대인관계에 대해 긍정적이 되며 폭력적인 행동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Laub과 Sampson(1991)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함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결여, 강압적 처벌, 폭력, 이로 인한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의 약화가 복합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Orpobas와 동료들(1999)은 부모감독,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즉 애착이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상아동의 부모와 비교할 때 반사회적 아동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수용, 온정, 애정, 정서적 지지, 애착을 덜 보여주었다(Loeber & Dishion, 1984; West & Farrington, 1973).

부모감독은 또한 자녀의 학업이나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도 있다(박진경, 도현심, 2001; 천희영, 김미혜, 옥경희, 2002; Crouter, MacDermid & Perry-Jenkins, 1990). 학령기 동안 부모의 낮은 감독 수준은 자녀의 낮은 학업성취나 높은 문제행동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기에는 낮은 부모감독이 범죄나 약물사용과 같은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Crouter et al., 1999). 부모감독이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보호변인으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도 있다(Laird, Pettit & Bates, 2003; Laire, Pettit & Dodge, 2003). 따라서 부모감독은 문제행동의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 4. 선행연구

이 연구에서 설정한 부모관련 변인과 자아관련 변인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모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심리적 변인의 분석 연구(최태산, 홍경자, 1997)에서, 부모의 감독과 통제, 적당한 훈육,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력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인

과적으로 작용한 것이 밝혀졌다. 하영희(2003)는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의 학년, 성별,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 또래지지, 학교생활 만족도 및 자아통제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경우 부모의 엄격 애정형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통제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았다.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아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남현미와 옥선화(2001)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 가족의 불화 등 가족의 심리적 환경 특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적지만 자아통제력과 친구지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 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접근과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및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부모의 감독 정도와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정자(2005)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 문제행동에 공통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취업여부, 부모의 감독정도,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이었다. 또한 모취업여부는 부모의 감독정도를 통하여, 부모의 감독정도는 자아통제력을 통하여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자아통제력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5. 본 연구 설계의 근거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을 개별적 또는 부분적으로 살펴본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들은 유기적이며 상호보완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중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제행동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성이나 상대적 영향력을 다변인 모델 안에서 살펴 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아동의 자아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원인 중에서도, 특히 아동을 문제행동 상황으로 유도하는 일차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이 속해있는 가족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김준호, 1993;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아동의 문제행동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관계나 가족체계 문제 등 총체적인 가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최규련, 1996), 이를 가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다. 최근에는 결손가족이나 저소득층 가족 같은 가족의 물리적 환경보다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준호, 김순형, 1995; 민수홍, 1996).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으로 부모관련 변인을 설정하였고, 이에 부모의 폭력, 부모와의 애착, 그리고 부모의 감독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문제행동에 대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직접적으로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동의 개인변인, 특히 아동의 자아에 관련된 심리적 특성 변인이다. 개인의 행동은 대부분 부모나 타인의 명령 또는 이들에게서 오는 결과에 의해서 통제되지만, 개인 자신의 내적 명령, 지시 또는 자신이 만든 상과 벌에 의해 통제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은 외적 요인에 의해 통제되다가 점차 이러한 통제가 내면화되어(유효순, 홍순정, 1995), 자신에 의해 조절되고 통제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개인특성 변인으로 공격성, 충동성, 자아존중감(원호택, 1991; 민수홍, 1996), 자아통제력(김두섭, 민수홍, 1996; 김현숙, 1998)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아관련 변인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력을 설정하였다.

요약하면, 이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중 자아에 관련된 변인이 문제행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보고, 자아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관련 변인을 설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모관련 변인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자아관련 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고찰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구성하였다.



### Ⅲ.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모형



### Ⅲ. 연구문제

#### 1.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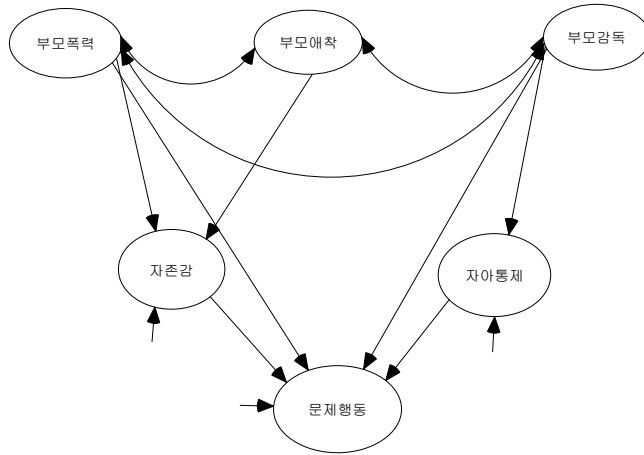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부모관련변인, 자아관련변인,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부모폭력,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 간에는 서로 상관이 있는가?
2. 부모관련변인인 부모폭력,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은 자아관련변인인 자존감(부정적 자존감) 형성 및 자아통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3. 자아관련변인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4. 부모관련변인은 문제행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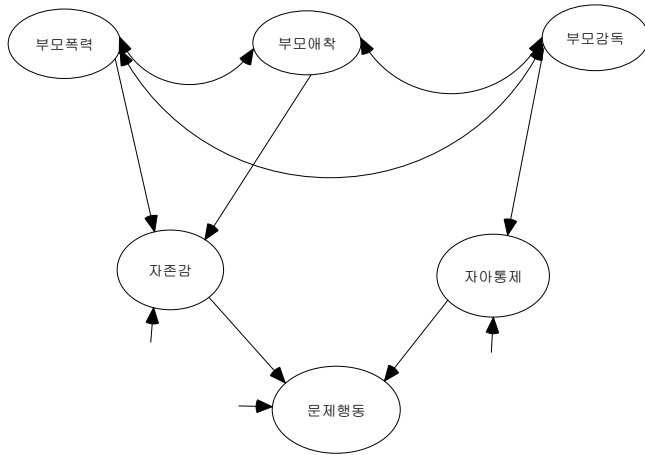
#### 2. 연구모형

위와 같은 연구문제에 따라 부모관련변인, 자아관련변인,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연구모형을 각각 [그림Ⅲ-1], [그림Ⅲ-2]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Ⅲ-1]은 부모관련변인인 부모폭력, 부모애착, 부모감독 변인이 문제행동에 자존감 및 자아통제를 통한 간접적 영향 뿐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도 미침을 가정하였다. 반면에 [그림Ⅲ-2]에서는 부모관련변인이 문제행동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만 가지고 있음을 가정하였다. 한편 자아관련변인, 즉 자존감과 자아통제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두 연구 모형 모두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연구모형은 선행연구들의 분석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험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두 가지 모형 중 보다 적합하면서도 간명한 모형을 찾아내고

자 하였다.



[그림 III-1] 제 1 연구모형



[그림 III-2] 제 2 연구모형

## IV. 연구방법

1. 조사대상
2. 측정도구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 IV.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 조사에 참가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844명 중 무응답자를 제외한 2,5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성별은 남자 1,524명(54%), 여자 1,320명(46%)이었으며 출생연도를 살펴보면 93년생 이하는 13명(0.4%), 94년생은 2,473명(87%), 95년생 이상은 358명(12.6%)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94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초등학교 4학년용 패널 설문지로 그 중에서 부모, 자아 및 문제행동과 관련된 문항들이 부분적으로 선택되어 사용되었다. 부모관련문항으로는 부모폭력에 관한 문항 2개, 부모애착에 관한 문항 4개, 부모감독에 관한 문항 3개가 선택되었으며, 자아관련문항으로는 자존감(부정적 자존감)에 관한 문항 3개, 자아통제에 관한 문항 4개가 선택되었다. 문제행동관련문항으로는 외현적 문제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성에 관한 문항 6개와 내재적 문제행동으로 볼 수 있는 불안·우울·자살충동에 관한 문항 6개가 선택되어 총 28개의 문항이 선택되었다(<표 IV-1> 참조).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각 하위영역, 즉 부모폭력, 부모애착, 부모감독, 자존감, 자아통제, 공격성, 불안·우울·자살충동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표 IV-1> 각 변인별 문항 및 신뢰도 계수

영역	하위영역	문항
부모관련	부모폭력 (.65)	1.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2.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낮은 적이 많이 있다.
	부모애착 (.74)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부모감독 (.79)	1.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2.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3.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자아관련	(부정적) 자존감 (.76)	1.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때때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자아통제 (.57)	1.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2.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3.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4. 나는 학교 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
문제행동	공격성 (.76)	1.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2.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4.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5.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6.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불안·우울·자살충동 (.80)	1.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2.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3.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4.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5.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6.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 ) =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Cronbach  $\alpha$ 의 범위는 .57에서 .80까지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각각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표 IV-1> 참조) 부모폭력은 .65, 부모애착은 .74, 부모


감독은 .79, 자존감은 .76, 자아통제는 .57, 공격성은 .76, 불안·우울·자살충동은 .80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전형적인 종단적 조사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2004년 전국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하여 2,844명을 추출하였다. 그들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일대일 면접을 통한 제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기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 앞서 무응답 항목이 있는 설문지 277부를 제외한 결과 총 2,567부의 설문지가 실제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통계분석은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이다.





## V. 결과





## V. 결과

이 연구는 부모관련변인, 자아관련변인,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앞서 실시한 7개의 연구변인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계수는 <표 V-1>과 같다. <표 V-1>에서와 같이 변인들 간의 상관은 .09~.49의 상관을 보이며 모두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 것은 부모감독과 불안·우울·자살충동 간의 상관(-.09)이었으며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간의 상관, 자존감(부정적 자존감)과 불안·우울·자살충동 간의 상관(각 .46)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감독과 자아통제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모두 부모 애착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폭력, 자존감, 공격성, 불안·우울·자살충동은 부모 감독 및 자아통제와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부모애착, 부모감독, 자아통제 간에는 서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폭력, 자존감, 공격성, 불안·우울·자살충동 간에도 정적 상관이 있

<표 V-1> 연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 $N=2567$ )

연구변인	1	2	3	4	5	6	7
1. 부모폭력	1.00						
2. 부모애착	-.30	1.00					
3. 부모감독	-.18	.46	1.00				
4. 자존감*	.23	-.25	-.17	1.00			
5. 자아통제	-.24	.21	.20	-.27	1.00		
6. 공격성	.23	-.15	-.11	.40	-.40	1.00	
7. 불안·우울·자살충동	.22	-.17	-.09	.46	-.19	.39	1.00
평균	3.11	15.63	10.38	6.54	15.31	10.72	8.09
표준편차	1.60	3.02	3.05	2.68	2.98	3.94	3.82

\* 자존감의 수치가 높을수록 낮은 자존감, 즉 부정적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함.

<표 V-2> 관찰변인들의 상호상관 및 표준편차

(N=2567)

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1.00																											
2	.40	1.00																										
3	.37	.52	1.00																									
4	.43	.40	.40	1.00																								
5	.28	.28	.29	.33	1.00																							
6	.28	.25	.26	.33	.57	1.00																						
7	.27	.26	.28	.33	.56	.55	1.00																					
8	-.14	-.22	-.22	-.18	-.15	-.12	-.11	1.00																				
9	-.19	-.22	-.21	-.19	-.15	-.12	-.13	.50	1.00																			
10	-.13	-.18	-.21	-.17	-.12	-.13	-.12	.15	.16	1.00																		
11	-.10	-.13	-.16	-.13	-.11	-.11	-.08	.16	.16	.57	1.00																	
12	-.15	-.16	-.18	-.16	-.11	-.13	-.13	.17	.20	.51	.47	1.00																
13	.07	.09	.11	.08	.07	.09	.05	-.09	-.10	-.12	-.14	-.12	1.00															
14	.07	.06	.07	.06	.10	.10	.07	-.10	-.15	-.12	-.18	-.13	.22	1.00														
15	.11	.10	.10	.09	.12	.10	.09	-.13	-.19	-.13	-.18	-.12	.22	.37	1.00													
16	.15	.14	.17	.19	.19	.22	.18	-.15	-.20	-.19	-.19	-.18	.25	.22	.27	1.00												
17	.06	.05	.07	.06	.07	-.08	-.04	.10	.12	.20	.24	.14	-.18	-.23	-.26	-.18	1.00											
18	-.02	.01	-.05	-.03	-.04	-.03	-.03	.05	.08	.12	.16	.08	-.12	-.16	-.21	-.13	.50	1.00										
19	-.04	-.09	-.11	-.09	-.10	-.11	-.10	.17	.15	.18	.25	.19	-.19	-.26	-.29	-.19	.36	.29	1.00									
20	.06	.08	.12	.08	.06	-.06	-.04	.13	.18	.23	.29	.21	-.18	-.17	-.18	-.17	.38	.27	.33	1.00								
21	-.08	-.09	-.10	-.10	-.06	-.07	-.07	.13	.13	.21	.22	.22	-.15	-.15	-.19	-.18	.32	.21	.32	.37	1.00							
22	-.03	-.07	-.11	-.07	-.06	-.06	-.05	.13	.17	.27	.30	.28	-.14	-.20	-.21	-.18	.31	.23	.38	.42	.47	1.00						
23	-.18	-.15	-.15	-.18	-.15	-.15	-.17	.12	.16	.20	.18	.24	-.15	-.12	-.12	-.21	.09	.05	.23	.14	.18	.19	1.00					
24	-.04	-.07	-.11	-.10	-.06	-.06	-.09	.10	.11	.26	.22	.26	-.09	-.09	-.10	-.15	.15	.10	.16	.18	.18	.21	.30	1.00				
25	-.03	-.10	-.12	-.09	-.04	-.03	-.05	.13	.12	.31	.28	.30	-.11	-.10	-.11	-.15	.19	.10	.18	.24	.24	.28	.24	.45	1.00			
26	-.06	-.10	-.15	-.11	-.07	-.06	-.07	.15	.18	.34	.28	.35	-.10	-.10	-.09	-.15	.15	.10	.21	.25	.23	.31	.25	.39	.57	1.00		
27	-.06	-.08	-.13	-.10	-.07	-.03	-.07	.13	.16	.32	.25	.33	-.07	-.05	-.05	-.11	.14	.10	.18	.24	.23	.29	.21	.35	.49	.73	1.00	
28	-.09	-.12	-.15	-.12	-.08	-.07	-.08	.18	.19	.33	.28	.34	-.10	-.10	-.10	-.15	.16	.10	.19	.23	.19	.28	.22	.25	.37	.48	.57	1.00
B	1.05	.92	.96	1.09	1.17	1.23	1.22	.80	1.04	1.12	1.07	1.06	1.28	1.13	.93	1.14	1.19	1.09	.89	1.26	1.16	1.10	1.03	1.22	1.25	1.20	1.21	1.08

A: 관찰변인 1-4:부모애착; 5-7:부모감독; 8-9:부모폭력; 10-12:자존감;  
13-16:자아통제; 17-22:공격성; 23-28:불안 · 우울 · 자살충동

B: 표준편차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관련 및 자아관련 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찰변인들의 상호상관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V-2>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도출된 두 가지 연구모형들 중 경험자료를 잘 설명하면서도 가장 간명한 최적의 모형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방식은 공분산행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모형의 계수 추정 방법은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연구모델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모델들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적합도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chi^2$ 를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적합도 지수로는 GFI, AGFI, RMSEA, NFI, TLI, CFI 등이 있으며 모형 적합성의 수용가능 수준은 GFI, AGFI, NFI, TLI, CFI는 .90이상일 경우, RMSEA는 .05미만인 경우이다(조현철, 2003). 연구모형들의 적합도지수를 비교한 결과, <표 V-3>에 제시되어 있듯이 두 가지 모형 모두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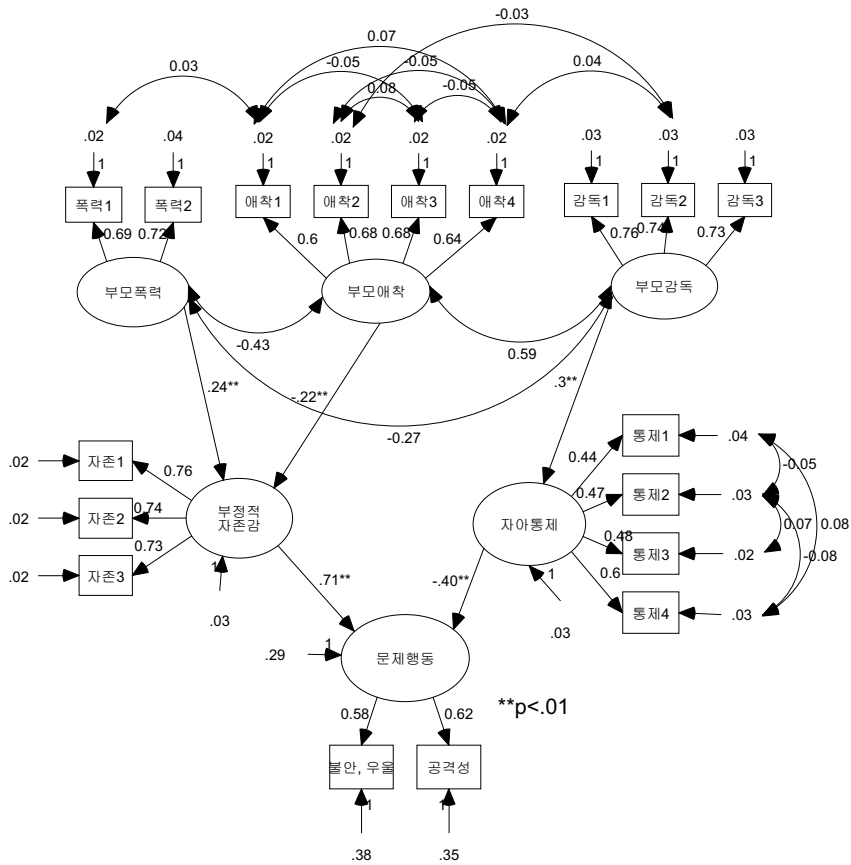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적합도와 간명도 간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적합도와 간명도는 상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적합도를 높이고자 하면 간명도는 상실되며 반대로 간명도를 높이고자 하면 적합도가 낮아지게 된다.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복잡하게 꾸며진 모델을 검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적합도에 문제가 있지 않은 수준에서 간명한 모델을 제시하

<표 V-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지수	$\chi^2$	df	GFI	AGFI	N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I	759.677	124	.967	.955	.930	.926	.940	.046
연구모형 II	834.787	127	.966	.954	.927	.924	.937	.047
연구모형 II-R*	687.358	115	.972	.959	.940	.932	.949	.044

\* 연구모형 II-R: 수정지수를 참고로 하여 수정된 연구모형 III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이순목, 199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두 가지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하였으므로 그 중에서 가장 간명한 모델인 연구모형Ⅱ를 최종 경로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정지수들(modification indices)을 참고로 하여 일부 관측변인 오차항간의 공분산을 허용함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오차항간의 공분산을 허용한 경우는 애착1과 폭력1, 애착3, 애착 4간의 오차



[그림 V-1] 최종 경로모형의 경로도(표준화 경로계수 결과)

<표 V-4> 최종경로모형에 대한 추정치 요약

기준 변인	예측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R <sup>2</sup>
문제행동	부정적 자존감	.71**	.71**	-	.70**
	자아통제	-.40**	-.40**	-	
	부모폭력	.17**	-	.17**	
	부모애착	-.16**	-	-.16**	
	부모감독	-.12**	-	-.12**	
자아통제	부모감독	.30**	.30**	-	.12**
자존감	부모폭력	.24**	.24**	-	.15**
	부모애착	-.22**	-.22**	-	

\*\* p<.01

항, 애착2와 애착3, 애착4, 감독2간의 오차항, 애착3과 애착4간의 오차항, 애착4와 감독2간의 오차항, 통제1과 통제2, 통제4간의 오차항, 통제2와 통제3, 통제4간의 오차항으로 모두 12경우이다.

문제행동을 예측하는데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된 연구모형Ⅱ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유의도 수준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V-1] 과 <표 V-4>에 제시하였다. [그림 V-1]과 <표 V-4>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별로 제시하였다.


첫째, 부모폭력과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 간에는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폭력은 부모애착(-.43) 및 부모감독(-.27)과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사이에는 정적상관(.59)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폭력(.24)과 부모애착(-.22)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 $p < .01$ )에서 부정적 자존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폭력이 빈번하고 부모애착정도가 낮을수록 부정적 자존감이 높게 형성된다고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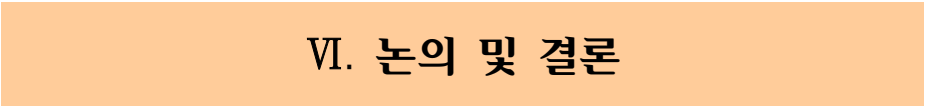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폭력이 부모애착보다 낮은 자존감 형성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 두 변인의 자존감에 대한 전체 설명량은 15%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감독(.3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p < .01$ )에서 자아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감독의 자아통제에 대한 설명량은 12%이다. 셋째, 자존감(.71)과 자아통제(-.4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p < .01$ )에서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 자존감은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통제는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부모폭력(.17), 부모애착(.16) 및 부모감독(-.12)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p < .01$ )에서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폭력 및 부모애착은 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문제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감독은 자아통제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폭력의 수준은 높을수록, 반면에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의 수준은 낮을수록 문제행동의 수준도 심각해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전체 설명량은 70%로 꽤 높은 편이며 부모관련 변인보다는 자아관련 변인이 문제행동과 보다 직접적이고 깊은 연관이 있다 하겠다. 또한 다섯 가지 하위 변인 중 문제행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자아관련 변인 중 부정적 자존감이라 할 수 있다.



## VI. 논의 및 결론





## VI. 논의 및 결론

이상에서와 같은 연구결과와 앞에서 고찰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문제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부모폭력과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 간에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폭력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애착 수준 및 부모감독 수준은 낮았으며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감독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적인 부모는 자녀와의 친밀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통제도 잘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무서운 부모”가 자녀에 대한 통제를 잘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이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일반적 상식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엄격한 부모는 폭력적인 부모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기존의 학설(eg. Baumrind, 1971)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간의 적적인 상관은 부모감독의 효과와 안정적인 부모애착 간에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Kerns et al. 2001)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부모폭력과 부모애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정적 자존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폭력 수준은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애착 수준은 낮을수록 부정적 자존감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폭력이 부모애착보다 낮은 자존감 형성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개인의 긍정적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일련의 연구보고(Maccoby & Martin, 1983; Harter, 198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부모감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아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 초기에는 부모감독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자아통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아직 연령이 어려 부모의 감독이 자아통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적어도 청소년기 초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부모감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아관련변인으로 자존감과 자아통제수준이 낮을수록 문제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아통제를 잘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일수록 위기상황에서 문제행동을 덜 보인다는 선행연구(Feldman & Weiberger, 1994)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자존감과 비행, 공격적 불안과 같은 비행 간에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Kaplan, 1979)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나 자존감과 문제행동간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선행연구(Robinson & Frank, 1994)와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폭력,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존감과 자아통제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폭력 수준은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애착 수준은 낮을수록 청소년들로 하여금 부정적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하며, 부정적 자존감 형성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통제 수준이 높으며 높은 자아통제 수준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관련변인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일련의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우선 부모폭력과 관련하여서 일련의 선행연구들(Frude, 1984; 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Sturge, 1982; Webster-Stratton & Herbert, 1994)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그들 부모가 자녀 양육경향에 있어서 폭력적이고 비판적인 것을 포함, 엄격한 훈육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은 가정의 폭력과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Sears, Maccoby & Levin, 1957). 또한 부모애착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련의 선행연구결과(Hurlock, 1987; Loeber & Dishion, 1984; West & Farrington, 1973)

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따라 문제행동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아관련 변인이 부모관련 변인에 비해 문제행동에 보다 직접적이고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측정된 다섯 가지 하위 변인 중 문제행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자아관련 변인 중 부정적 자존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물론 자아관련변인이 문제행동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부모관련변인 역시 자아관련변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만큼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학생으로 제한되어있다는 점이다. 이 시기는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로서 이후 청소년 중기나 후기에는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후기 또는 청소년기 초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청소년기 초기 이후 자아관련변인과 부모관련변인이 문제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준거변인으로 사용된 문제행동변인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문제행동을 외현화문제와 내재화문제로 나누어 보긴 하였으나 각 문제와 예측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였으며 전체적인 문제행동과의 관계만을 살펴보았다. 또한 실제로 문제행동에는 보다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바 후속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을 좀 더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자아관련 변인 및 부모관련 변인이 어떤 유형의 문제행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부모관련변인 세 가지와 자아관련 변인 두 가지만을 예측변인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

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언급된 변인 이외의 어떤 변인들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변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문제행동의 예방 및 조기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문제행동의 발생 및 심각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개입이 중요하다. 여기서 조기개입이란 문제행동이 나타난 직후 개입하는 사후처치와 더 나아가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개입하는 예방적 차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제행동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문제행동 발생률을 낮추는데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문제행동이 만성화되고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미리 개입하는 조기 사후개입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선진국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국가들이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빠르면 영·유아기에서부터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초기 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sup>1)</sup>.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및 예방에 있어서 조기개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조기개입의 실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긍정적 자존감 및 자아통제력 증진과 관련된 영역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아통제와 자존감이었으니만큼 이 두 영역에서의 조기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존감이 낮거나, 자아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올바른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영역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부모폭

---

1)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Sure Start”운동이라 할 수 있다.

력, 부모애착, 부모감독은 자존감과 자아통제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문제행동 수준 저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긍정적 자존감을 형성하게 하고 자아통제 수준을 높임으로써 문제행동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 학대 등의 경험이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실시 등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마련됨으로써 부모폭력이 더 이상 방치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은 정책적 제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 문제를 보이지 않더라도 부모폭력 수준이 높거나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 또는 전반적으로 자존감 및 자아통제가 낮은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을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 그들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다양한 예방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그들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기정, 정은미(2003). 그룹홈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자기성장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1), 172-187.
- 고성혜(1994). 청소년기 가족문제-청소년이 겪고 있는 가족 내 문제의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기광도(2001). 사회계층과 범죄행위 간의 관계: 자녀양육 및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경연(1993). 어머니 관련변인 및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종단적 자료의 인과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1), 37-50.
- 김광일, 고복자(1987). 가정폭력. 서울: 탐구당.
- 김두섭, 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 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선희(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애경(2001).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271-285.
- 김은경, 유가효(2002). 아버지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준호(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김순형(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노성호(1993).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현숙(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화, 김경연(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5), 15-24.
- 남소현, 김영희(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현적, 내면적 부적응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8(10), 199-213.

- 남현미, 옥선화(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 노성호(2004). 청소년비행원인들의 연합효과에 대한 검증. 한국청소년 페널조사 (KYPS) II.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민수홍(1996). 비행의 조기예측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명화(2001). 유아교육기관에 통합되어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유아의 행동문제와 사회적 기술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1(4), 437-454.
- 박선영, 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4.
- 박영애, 정옥분(1996).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연구. 아동학회지, 17(1), 189-212.
- 박진경, 도현심(2001). 어머니의 감독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29-140.
- 서수경(1993). 유아의 행동과 기질 및 성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화희, 윤종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아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1(1), 5-71.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의열, 이미자(2001). 유아의 문제행동과 양육태도. 공주영상정보대학논문집, 8, 153-177.
- 심희옥(1997). 아동후기 초등학생의 우울성향: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3-144.
-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적응 생활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원과 부적응에 관한 중단 연구. 아동학회지, 19(2), 35-48.
- 안정만(2001). 부모양육태도와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학교폭력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미경(1998).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원호택(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 원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유안진, 최나야, 한유진(2002).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0.
- 유효순, 홍순정(1995).

- 이미리(2004). 청소년 초기 자아존중감 발달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맥락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 평가와 부정적 자아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 청  
소년 패널조사(KYPS) II,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4-R01-1.
- 이숙, 최정미(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또래수용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32-42.
- 이순목(1990). 공변량구조분석. 성원사.
- 이종원, 임성택, 최원기, 최종현 (2001). 전국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  
소년개발원.
- 조현철(2003). 구조방정식모델. 석정.
-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유미, 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산실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5.
- 천희영, 김미해, 옥경희(2002). 어머니의 자녀 감독지식과 근원에 관한 연구. 아동학  
회지, 23(3), 171-186.
- 천희영, 옥경희, 김미해(2001).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와 부모감독에 따른 또래관  
계 및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9(10), 153-168.
- 최규련(1996). 가족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와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34(1),  
147-160.
- 최영희(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영, 최인령(2002).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  
회지, 15(1), 63-72.
- 최태산, 홍경자(1997).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심리적 변인 분석. 한국교육심리학  
회, 11(2), 291-322.
- 하영희(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  
회지, 24(2), 29-40.
- 하영희, 김경연(2003).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간의 인과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16-30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청소년문제론.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훈, 도현심(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2), 145-157.
- 황혜신, 황혜정(2001). 유아의 인지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3), 25-34.
- 황혜정 (1997).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1(3), 331-350.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1981). Behaviour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four through sixte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1, Serial No. 188).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u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ur Profile*. Burlington, VT: Univ. of Vermont.
- Ainsworth, M.D.S., Blehar, M.,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Barber, B. K.(1992). Family, Personalit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1), 69-79.
- Barber, B. K. & Rollins, B. C.(1990). *Parent adolescent relationship*.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Barnes, G. M.(1990). Impact of the family on adolescent drinking Patterns. In R. L. Collins, K. P. Leonard, & J. S. Searles(Eds.), *Alcohol and the family: Research and clinical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Barnes, G. M. & Farrell, M. P.(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4), 763-776.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Vol 75, pp.43-88.
- Beck, A. T.(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and Row.
- Belsky, J., Campbell, S.B., Cohn, J.F., & Moore, G.(1996). Instabil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secu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2, 921-924
- Bowlby, J.(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
- Campbell, S. B., & Ewing, L. J. (1990). Follow-up of hard-to-manage preschoolers adjustment at age 9 and predictors of continu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 871-889.
- Crouter, A. C., Helms-Erikson, H., Updegraff, K., & McHale, S. M.(1999). Conditions underlying parents' knowledge about children's daily lives in middle childhood: Between-and within-family comparisons. *Child Development*, 70(1), 246-259.
- Crouter, A. C., MacDermid, S. M., & Perry-Jenkins, M.(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 and single-care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49-657.
- Cummings E.M., & Davies P.T.(1994).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73-112
- Department For Education(DFE) (1993). Pupils with problems. draft Circular. London: DFE Publications Centre.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DES) (1989). Special schools for pupils with emotional and behavioural difficulties. Circular 23/89. London: HMSO.
- Edwards, C. P., 하영희(2005). 부모와 형제에 대한 초기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애착, 사회경제적 지위 및 조망수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43-57.
- Faller, K.(1997).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한 형태. *가정폭력과 아동복지*, 189-199.
- Feldman, S. S., & Weiberger, D. A.(1994). Self-restraint as mediator of family 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5, 195-211.
- Fischer, M., Rolf, J.E., Hasazi, J.E., & Cummings, L.(1984). Follow-up of a preschool epidemiological sample: cross-age continuities and predictions of later adjustment with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dimension of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137-150.
- Frude, N. (1984). Frameworks for analysis. In N. Frude & H. Gault, *Disruptive behaviour in schools*. Chichester: Wiley.
- Gottfredson, M.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rter, S.(1988). 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In T. D. Yawkey & J. E. Johnson(Eds.). *Integrative process and socialization: Early to middle*

- childhood. Hillsdale, NJ.: Erlbaum.
- Harter, S.(1993). Cause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F. Baumeister(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NY: Plenum Press.
- Hirschi, T.(1969). *Cause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plan, H. B.(1979). Anxiety, self-derogation, and deviant behavior. In W. E. Fann, I. Karacan, A. D. Pokorny, & R. L. Willims(Eds.), *Phenomenology and treatment of anxiety*. New York: Spectrum.
- Kauffman, J. M.(1997).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6thed.)*.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 Kerns, A., Aspelmeier, J., Gentzler, A, & Grabil, C.(2001). Parent-child attachment and monitoring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1). 69-81.
- King, M. L. & Fularczyk, J.(1981). Rural adolescent delinquents: Their self concept, giftedness and perceived parental support.(ERIC Reproduction Document No. ED 221 963)
- Kobak, R., Cole, C., Fleming, W., Ferenz-Gills, R., & Bamble, W.(1993). Attach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during mother-teen problem-solving: A control theo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4, 231-245.
- Kochanska. G.(1991). Affectives factors in mothers' autonomy-granting to their five-year-old: Comparisons of well and depressed mothe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SRCD. Seattle, WA.
- Laird, R, Pettit, G., & Bates, J.(2003). Parents' monitoring-relevant knowledge and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Evidence of correlated developmental changes and reciproc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74(3), 752-768.
- Laird, R., Pettit, G., & Dodge, K.(2003). Change in parents' monitoring knowledge: Links with parenting, relationship quality, adolescent beliefs, and antisocial behavior. *Social Development*, 12(3), 401-419.
- Lamborn, S. D., Mounts, S., Steinberg, L., & Dornbusch, S. M.(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rian, indulgent,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oeber, R., & Dishion, T.J. (1984). Boys who fight at home and school: family

- conditions influencing cross-setting consist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759-768.
- Maccoby, E. E., & Martins,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4th ed.). New York: John Willey & Sons.
- McGee, R., Williams, S., Bradshaw, J., Chapel, J. L., Robin, A., & Silva, P. A. (1985). The Rutter Scale for completion by teachers: factors structure and relationships with cognitive abilities and family adversity for a sample of New Zealan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 729-739.
- McGuire, J., & Richman, N. (1988). *The preschool behaviour checklist handbook*. UK: NFER-NELSON.
- Medora, N.P. & von der Hellen, C.(1997). Romanticism and self-esteem among teen mothers. *Adolescence*, 32, 811-824.
- Minde, R., & Minde, K.(1977). Behavioural screening of pre-school children: a new approach to mental health. In P.J. Graham (Ed.), *Epidemiological approaches in child psychiatry*. London: Academic Press.
- Mischel, W., Shoda, Y., & Peake, P.K..(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687-696.
- Morita, H., Suzuki, M., & Kamoshita, S. (1990). Screening measures for detecting psychiatric disorders in Japanese second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4), 603-617.
- Patterson, G.R., & Stouthamer-Loeber, M.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307.
- Richman, N., Stevenson, J., & Graham, P. J. (1982). *Pre-school to school: a behavioural study*. London: Academic Press.
- Robinson, R. B. & Frank, D. I.(1994).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sexual activity, and pregnancy. *Adolescence*, 29, 27-36.
-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104-1018.
- Rutter, M. (1967). A children's behaviour questionnaire for completion by teachers.

-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8, 1-11.
- Rutter, M., Cox, A., Tupling, C., Berger, M., & Yule, W. (1975). Attainment and adjustment in two geographical area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6, 493-509.
- Rutter, M., Tizard, J., & Whitmore, K.(Eds.) (1970). *Education, health and behaviour*. London: Longman.
- Sears, R.R., Maccoby, E.E., & Levin, H. (1957). *Patterns of child-rearing*. Evanston, IL: Row & Peterson.
- Shaffer, D. R.(1993).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3rd Ed.). California: Brooks/Cole.
- Shaffer, R.(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Wadsworth.
- Shepherd, M., Oppenheim, A.N., & Mitchell, S. (1971). *Childhood behaviour mental health*.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 Steinberg, L., Lamborn, S.D., Darling, N., Mounts, N.S., & Dornbusch, S.M.(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3), 754-770.
- Sturge, C. (1982). Reading retardation and antisocial behaviou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3, 21-31.
- Sutherland, E. H., & Cressey, D.R.(1978). *Criminology*. 10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Thompson, R. A.(1998). Early sociopersonality development. In W. Damon & N. Eisenberg(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 Vol. 3 (pp. 25-104). New York: John Wiley& Sons.
- Webster-Stratton, C., & Herbert, M. (1994). *Troubled families - problem children: working with parents: a collaborative proces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West, D.J., & Farrington, D.P. (1973). *Who becomes delinquent?* N.Y.: Crane, Russak & Co.

## 2005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 기관고유과제

- 05-R0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김민 · 임경희  
05-R02 청소년 매니아 문화의 실태와 정책 과제 / 조혜영 · 김종길  
05-R03 청소년지도사 근로실태 및 전문화 방안 연구 / 길은배 · 이미리 · 문성호  
05-R0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김경화 · 조용하  
05-R0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연구 / 이민희 · 임지연 · 김흥주 · 주동범  
05-R06 국제청소년교류활동 평가체계 및 모형 개발 / 오해섭 · 김진화  
05-R07 청소년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 최창욱 · 김정주 · 조영희  
05-R08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 김경준 · 최인재 · 조흥식 · 이용교 · 정익중 · 이상균  
05-R08-1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 김경준 · 최인재 · 김향초 · 주재현 · 윤혜순 · 김문섭  
05-R09 특별지원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개발 연구 / 이해연 · 조아미 · 박현선  
05-R10 청소년 보호정책 실태와 발전 방안 / 윤철경 · 박병식 · 김현주 · 이봉주 · 김성경  
05-R10-1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 자료집 / 윤철경 · 장혜영  
05-R11 청소년보호시설 · 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연구 / 이춘화 · 방은령 · 윤옥경  
05-R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I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 · 백혜정  
05-R12-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 이경상 · 유성렬 · 박창남  
05-R12-2 청소년비행의 상습화현상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05-R12-3 초등학교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이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 백혜정 · 황혜정  
05-R13 청소년개발지표 연구II: 측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 김현철 · 김신영 · 김진호 · 송병국 · 임성택 · 임영식  
05-R14 청소년 정보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권기창 · 이수진 · 이인호  
05-R14-1 청소년 정보복지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권기창  
05-R14-2 청소년의 정보이용 활성화 정책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이수진  
05-R14-3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 박영균 · 성윤숙 · 이인호

### ■ 협동연구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III :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법 · 행정 · 제도환경, 외국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한 · 이명진 · 이승현 (자체번호 05-R15)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2 청소년 유해업소 개선대책 연구 / 유진이 · 김영인 · 류중석 · 신현숙 (자체번호 05-R16)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3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대책 연구 : 인터넷 유해요인과 개인 · 환경적 보호요소를 중심으로 / 서정아 · 김영희 · 김서연 (자체번호 0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4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대책 연구 :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  
 동의 보호요인 탐색과 처치방안 / 한상철·김남선·이수연·이미연·최성열 (자체번호 0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5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연구 /  
 최인섭·강석구·김혜경 (자체번호 05-R19)

#### ■ 수시과제

05-R20 문화콘텐츠 창작을 위한 창의적 문화교육 방안 연구 / 서동훈·김효정  
 05-R21 디지털시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 이각범·황상민·조은·김옥순·배영자·강원택·유성경  
 05-R22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부모교육 방안 연구 / 한정란·이성호·강승혜·김미옥·  
 김은정·김혜수·박정화  
 05-R23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 용역과제

05-R30 제주도 청소년문화특화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진호·최창욱  
 05-R31 제주도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실태 및 요구조사 / 김진호·최창욱  
 05-R32 청소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 이민희·김진호·최창욱·강일규·강정석·김은경·김흥주·  
 김현철·성운숙·최인재  
 05-R3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 연구 / 김영한·이춘화  
 05-R34 농어촌 청소년복지정책 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김진모  
 05-R35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 오해섭·윤철경  
 05-R36 청소년위원회 BPR/ISP 구축 / 성운숙·백해정·김신영·윤경원·최봉학·박흥표·정병진  
 05-R37 청소년의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 조혜영·이경상·  
 최원기·Nancy Abelman  
 05-R38 오늘의 청소년 (Korean Youth of Today) / 박영균·김진호  
 05-R39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맹영임·박옥식·전명기  
 05-R40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 방향 연구 / 김경준·이춘화·최창욱·이용교  
 05-R41 2005 청소년백서 / 박영균·김현철  
 05-R42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민간인프라 구축 현황 및 방안 / 최인재·최창욱·반흥식·박수선  
 05-R43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 분석 연구 / 김경화·권해수·김혜영·박정선·박철현·  
 이지연·장승욱·정슬기·황규희  
 05-R44 청소년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연구 / 맹영임·길은배·김정주·김홍원·전명기  
 05-R4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 길은배·이미리·이용교·임영식  
 05-R46 2006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출제지침서 / 이춘화·김영한  
 05-R47 2005년 특성화수련거리·자연재해 예방 및 대처훈련 / 임지연·민성환·신명철

- 05-R48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윤철경 · 이혜연 · 서정아 · 윤경원 · 이봉주 · 양미진
- 05-R49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평가 / 김경화 · 김현철 · 이경상 · 조혜영 · 최인재
- 05-R50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평가 2 - 공모사업성과평가 / 김경화 · 조혜영 · 최인재
- 05-R51 2005 서울시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성운숙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5-S01 「새로운 통합 청소년 정책비전 및 정책과제 토론회」 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3. 16)
- 05-S02 「새로운 청소년 정책비전과 정책과제 공청회」 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3. 30)
- 05-S03 「2006년도 고유연구사업과제 발굴 · 선정을 위한 워크숍」 (3. 22)
- 05-S04 「청소년유형별 복지현황과 과제」 (7. 14)
- 05-S05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9. 2)
- 05-S06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9. 23)
- 05-S06-1 「외국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9. 23)
- 05-S07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10. 11)
- 05-S08 국제심포지엄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국제적 동향 및 정책과제(Building a Community-based Safety Net for Youths at Risk)」 청소년위원회 · OECD 공동주최 (10. 11)
- 05-S09 「갈등해결 관련 민간인프라 구축현황 및 향후과제」 (10. 22)
- 05-S10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11. 4)
- 05-S11 「청소년 인권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11. 8)
- 05-S12 정책포럼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서울특별시 공동주최 (11. 11)
- 05-S13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분석 연구」 (11. 11)
- 05-S14 「청소년 갈등해결 리더십 캠프」 자료집 (7. 22-24)
- 05-S15 학술세미나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가치관과 행동양식」 한국정보사회학회 공동주최 (11. 22)
- 05-S16 「청소년 정보화정책 비전과 추진과제」 (11. 23)
- 05-S17 「청소년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연구」 워크숍 (11. 25)
- 05-S18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 「College Dispositions : Chicagoland Korean America」 (6. 23)
- 05-S19 해외청소년기관 초청 정책 세미나 「중국의 사회변화와 청소년」 (7. 12)
- 05-S20 「청소년 보호정책의 대안 탐색 : 위기청소년 보호와 유해환경 개선대책」 (9. 15)
- 05-S21 국정과제 청소년분야 집중토론회 「향후 10년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공동주최 (10. 6)
- 05-S22 OECD 전문가회의 「Policies for Youth at Risk and Community-based Partnership in Korea」 (10. 10-11)
- 05-S23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12. 6)
- 05-S24 「한국청소년개발원 산 · 학 · 연 정책협의회」 (12. 15-17)
- 05-S25 전문가 포럼 「또띠와 함께하는 청소년교육과 문화」 경기도문화의전당 ·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공동주최 (12. 20)
- 05-S26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2. 23)

## ■ 연구수행 자료집

- 05-M00 2004 연구성과 모음집 / 연구기획팀  
05-M01 2005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5-M02 2005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전6권) / 연구기획팀  
05-M03 청소년육성기금사업 평가 「평가편람」 / 김경화

##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1호 (통권 제41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2호 (통권 제42호) / 연구정보지원팀

##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론」

##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 05-R12-3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인 쇄 2005년 12월 3일

발 행 2005년 12월 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쇄처 선명인쇄주식회사 전화 (02)2268-4743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제·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567-2(93330)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3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책임연구원 : 백혜정(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황혜정(경기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 : 김현희(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 연구 요약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관련 변인 및 부모관련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탐색해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제안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844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분산구조분석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폭력은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과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사이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폭력이 빈번하고 부모애착정도가 낮을수록 부정적 자존감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부모폭력이 부모애착보다 낮은 자존감 형성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부모감독이 높을수록 자아통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정적 자존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통제가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부모폭력 및 부모애착은 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문제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감독은 자아통제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폭력의 수준은 높을수록, 반면에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의 수준은 낮을수록 문제행동의 수준도 심각해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은 비교적 문제행동을 잘 예언하는 편이며 부모관련 변인보다는 자아관련 변인이 문제행동과 보다 직접적이고 깊은 연관이 있었다. 또한 다섯 가지 하위 변인 중 문제행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자아관련 변인 중 부정적 자존감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정리해보면 현재 문제를 보이지 않더라도 부모폭력 수준이 높거나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 또는 전반적으로 자존감 및 자아통제가 낮은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 그들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다양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그들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존감이 낮거나, 자아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 및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개발,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폭력가정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부모폭력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7
1. 문제행동	9
1) 문제행동의 개념	10
2) 문제행동에 관한 이론적 접근	11
3) 문제행동의 원인	12
4) 문제행동의 일관성	13
2. 자아관련변인과 문제행동	15
1) 자아존중감	15
2) 자아통제력	16
3) 자아관련 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16
3. 부모관련변인과 문제행동	17
1) 부모폭력	17
2) 부모애착	18
3) 부모감독	18
4) 부모관련 변인이 자아에 미치는 영향	19
5) 부모관련 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21
4. 선행연구	22
5. 본 연구 설계의 근거	23
III. 연구문제	27
1. 연구문제	29
2. 연구모형	29
IV. 연구방법	31
1. 조사대상	33
2. 측정도구	33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	35
V. 결과 .....	37
VI. 논의 및 결론 .....	45
참고문헌 .....	52

## 표 목차

<표 IV-1> 각 변인별 문항 및 신뢰도 계수 .....	34
<표 V-1> 연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	39
<표 V-2> 관찰변인들의 상호상관 및 표준편차 .....	40
<표 V-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	41
<표 V-4> 최종 경로 모형에 대한 추정치 요약 .....	43

## 그림 목차

[그림 III-1] 제 1 연구 모형 .....	30
[그림 III-2] 제 2 연구 모형 .....	30
[그림 V-1] 최종 경로모형의 경로도(표준화 경로계수 결과) .....	42